

탈핵운동의 대중적 확산 모색

구로구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
주민발의 운동

시작. 초동주체

- 민중의집 회원중 학교 운영위원회, 급식 모니터링 활동을 하는 회원들로부터 방사능 위험 급식에 대한 학부모들의 걱정이 있는것을 감지
- 11월초. 구로아이쿱생협, 한살림 서울서부지부, 구로민중의집 회원들이 최초 모임을 갖고(4명) 방안 모색. 방사능 안전급식을 위해 초동주체를 모아보기로 함. 초동주체 회의에서 급식과 방사능이 연계된 대중적 운동을 전개하기로 하고 지역에서 탈핵운동으로 이어지는 주체를 발굴하는 활동이 되도록 하자는데 의견을 모음.

- 11월 7일. 방사능 안전급식 설명회를 (30여명 참석). 급식의 방사능 관리실태와 위험성에 대한 간단한 교육을 한 후 향후 활동계획을 나누고 '방사능 안전 급식 지킴이'(이하 지킴이)를 만들기로 함



- 11월 15일. 지킴이 발대식.

40여명 참석.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를 주민발의로 진행하기로 함.
각 학교별로 급식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안전검사 실태를 파악하기로 함.





- 11/21일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 주민발의 돌입.
학부모 모임, 생협모임, 주민모임에 교육+학교방문+서명운동 전개





김익중교수 강연회. 150여명 참석



3개월간 8076명 주민 서명을 통해 주민발의 완료



주목할 지점들

- 실태를 알면 관심을 가진다. 교육과 강연이 있으면 바로 달라짐(커뮤니티 형성 과제. 기존 커뮤니티와의 관계형성)
- 실천활동을 통한 환경과 탈핵 정체성 확립
- 내아이 급식 -> 방사능의 위험성인식-> 탈핵운동의 이해와 참여 -> 탈핵전사ㅋㅋ(조직가)

향후계획

- 방사능급식관련소모임+탈핵공부 소모임
 - 지역에서는 탈핵에 대한 부드러운(?) 접근도 필요함
- 햇빛 발전소 같은 활동에 대한 모색
 - 120명의 수임인. 그 이상의 적극참여자 존재. 8000여명의 서명자들에게 방사능/핵발전소/탈핵/환경 관련소식을 나눌 수 있음.
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지속적인 지역 탈핵활동 모색
- 실천활동의 참여와 더 아래로 내려가는 주체화
- 탈핵3박자 (정책비전+선도실천+대중적지지확산)